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축하>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김현정 의원님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금융업계 관계자, 시민·소비자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제가 정무위원회에 몸담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문제, 역외펀드의 국내 직판에 대한 문제점, 벨기에 펀드 피해자의 재조정 요구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 선진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감시가 시장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이 모여, 금융감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비자 중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 체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국회의원 김승원